Global Strategy Report 18-001

대한민국의 꿈을 수출합니다 kotra

2018
Global Strategy Report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산업 협력방안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요 약 / 1

Ⅰ.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4 2. 연구목적과 추진방향

Ⅱ. 극동지역 관광자원과 협력방안

5 1. 극동지역 관광산업
10 2. 극동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13 3. 주요 관광자원과 한국의 협력방안

Ⅲ. 임업 · 목재산업 협력방안

29 1. 극동지역의 산업환경
32 2. 극동지역에서 중국의 임업협력 현황
35 3. 한국과의 협력방안

Ⅳ. 결론 및 시사점

50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52

요 약

□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한국의 협력사업

○ 러시아의 극동개발은 에너지자원 개발, 인프라 개선 등이 우선적인 과제이지만 그 외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

* 극동개발 정책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

○ 한국정부도 '9-브릿지(bridge)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

* 관광, 임업·목재 산업은 양국 간의 협력 다변화 및 단기적 성과추진이 가능

□ 극동지역 관광자원과 협력방안

○ 극동지역 주요 관광지인 캄차카주, 프리모르스키주, 하바롭스크주를 중심으로 2015년 이후 러시아 내국인 관광객 큰 폭 증가

* 2014년부터 지속된 루블화 평가절하와 국내여행 장려가 긍정적인 영향

*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에 특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동북아 국가와 협력추진

○ '루스끼 섬(Русский остров)'은 러시아정부의 정책적 중요성, 한국의 개발경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적극 협력관여 필요

* MICE 등 관광시설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 등에서 노하우 전수 등 참여

* 고르니 보즈두흐는 스포츠·문화·휴양 연계협력으로, 캄차카는 생태관광에 초점

□ 임업·목재산업 협력방안

○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연간 약 2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임산물을 수입해 오고 있는데, 목재펠릿류는 동남아 등지에서 수입하는 상황

* 한국을 비롯한 일본의 목재펠릿 사용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요확보

○ 현지기업과 합작으로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현지에서의 목재가공을 통해 한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펠릿수요국에 수출

* 극동지역에 생산시설을 갖추어 원재료 수급리스크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종합 임업 협력이 가능한 클러스터 구축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한국의 극동협력사업

○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역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러시아의 극동개발은 국가차원의 지역개발로 특정분야에 치우친 투자나 발전보다는 지역 경제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극동지역에서의 에너지자원 개발, 인프라 개선 등이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적인 과제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각화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

- 인구가 적은 극동분야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유입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사할린과 캄차카를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관광산업은 지역 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인식

  * 극동지역의 관광자원은 주로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에 기반하고 있으며 외부의 투자확대를 통한 관광자원 개발이 주요 과제

- 임업·목재 분야는 극동지역의 풍부한 삼림자원을 활용 및 가공한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여 러시아 정부가 외부와 추진하는 주요 협력 분야 중 하나

○ 한국정부가 현재 극동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은 '9-브릿지(9-bridge)'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

- '9-브릿지' 전략으로 한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협력 분야는 전력, 천연가스, 조선, 항만 등으로 공통적으로 단기간 내에 사업성과를 크게 도출하기 어려움.

  * '9-브릿지'의 사업 분야는 전력, 천연가스, 조선, 수산, 북극항로, 항만, 철도, 산업단지, 농업임.

- 반면, 관광, 임업·목재 등의 산업 분야는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정부의 주요 협력분야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한국기업들이 기존에 추진하던 프로젝트들이 다수 존재하며 비교적 성과를 내기에 용이

- 관광산업의 경우 루스끼 섬, 사할린, 캄차카의 관광자원 개발계획 및 한국의 개발경험, 발전방안을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통해 러시아 측과 공유

- 임업·목재 산업도 한국의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극동지역의 산업 잠재력을 평가하고 개발방향을 공유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미 일부 한국 기업은 현지에서 사업타진

2 연구목적과 추진방향

□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산업에서 한국과의 협력방안 모색

○ 극동지역에서 9-브릿지 이외에 한국과 긍정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관광 및 임업·목재 산업의 사업현황 분석과 협력 시사점 도출

- 극동지역에서의 한국과 협력이 가능한 관광자원을 선별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의 모델을 제시하여 9-브릿지 이외의 분야에서 한·러 간 협력기회 모색

- 임업·목재산업은 러시아의 자원 활용이 가능한 협력분야로 우리 기업의 가공분야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상생의 방안 마련

○ 관광산업과 임업·목재산업의 사업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협력 우선순위와 방안을 도출

- 관광산업은 러시아 연방정부차원의 관광산업 개발방향과 지역단위 관광산업 발전방향을 분석하여 한국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

  * 구체적으로 극동지역의 주요 3대 협력가능 관광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기준에 따른 협력의 우선순위와 협력방안을 도출

- 임업·목재 산업은 현실적으로 협력의 구체화가 가능한 목재펠릿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 추진을 위한 임업환경과 한국과의 수출입 현황에 대한 자료, 극동지역 팰릿의 주요 소비처인 동아시아 지역의 수요변화연구

- 앞선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구체적인 목재펠릿 협력 방안을 이끌어내고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제시

Ⅱ 극동지역 관광자원과 협력방안

1 극동지역 관광산업

□ 러시아 관광인구 유출입 현황

○ 러시아 관광산업은 2010년대 이후 내수 관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해외로의 관광은 2013년을 정점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

- 2014년 경기불황과 루블화 평가절하로 인해 러시아인들의 해외 관광이 줄어든 반면, 이를 대체하는 러시아 국내관광은 확대

〈 표 1 〉 러시아인의 국내/외 관광 횟수: 2012-2017년

(단위: 천 회)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국내	100,067	116,550	122,617	140,100	159,340	174,968
국외	39,780	45,039	37,076	27,301	21,870	23,048

* 주: 2017년은 예측치임.

* 자료: Travel in Russia, Euromonitor International, Sep. 2017.

- 2012년 연간 러시아인들의 국내 여행 횟수는 약 1억 회에 불과했으나 2013년 1억 1,655만 회, 2016년 1억 5,934만 회에서 2017년에는 약 1억 7,500만 회로 크게 증가

* 국내 관광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 관광관련 소비 총액은 2012년 약 6,920억 루블에서 2017년 1조 1,211억 루블로 큰 폭으로 확대

- 반면, 국외여행은 2013년 4,503만 회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2,187만 회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2017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반등한 2,304만 회를 기록한 것으로 예상

○ 러시아인의 국내 관광이 증가한 것은 2014년 러시아 경제위기 이후 해외관광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지로 국내관광 수요 확대된 것에 기인

- 2014년 경제위기로 인해 루블화 가치가 크게 평가절하 됨에 따라, 러시아인들이 해외여행보다는 지출이 적은 국내여행을 선호하게 되면서 국내여행이 증가

- 또한 지난 2015년 10월 러시아 최대의 여행지인 이집트에서 러시아 항공기가 격추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이집트 여행을 장기간 금지시키고 대체지로 국내여행 장려

* 정부의 외환유출 통제를 위한 수입대체화 정책도 해외여행 수요를 억제

- 2017년부터 루블화 환율이 안정화되고 경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국외여행도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

○ 외국인 관광객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2017년은 정체된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양상

- 2012년 이후 러시아 유입 외국인 관광수요는 추세적으로 상승세에 있었으며 환율요인이 관광부문을 크게 활성화 시킨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2012년 외국인 관광객 유입횟수는 2,529만 회에서 2016년에는 3,194만 회까지 증가하였으나 2017년은 3,138만 회로 소폭 감소

〈 표 2 〉 러시아 유입 외국인 관광 횟수: 2012-2017년

(단위: 천 회)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횟수	25,296	27,644	29,107	30,281	31,948	31,389

* 주: 2017년은 예측치임.
* 자료: Travel in Russia, Euromonitor International, Sep. 2017.

□ 극동지역 관광산업 현황

○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극동지역의 내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까지 다소 증가한 모습

〈 표 3 〉 극동지역 유입 내국인 관광객 수: 2009-2014년

(단위: 천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하공화국	129.6	124.3	136.6	142.6	142.1	138.5
캄차카주	66.5	75.9	67.1	74.1	70.5	73.0
프리모르스키주	501.5	597.7	559.9	589.3	496.4	488.3
하바롭스크주	331.2	377.4	402.3	403.9	384.6	377.4
아무르주	189.3	194.1	258.2	264.0	249.8	240.7
마가단주	39.3	41.0	45.6	58.8	56.3	49.5
사할린주	127.5	143.9	177.0	177.2	159.8	121.3
유대인자치구	29.0	30.5	30.0	24.2	22.7	21.2
추코트카 자치구	23.9	23.2	21.4	26.7	26.8	9.1
합계	1,437.7	1,607.9	1,698.0	1,760.9	1,609.0	1,519.0

* 자료: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ство по Туризму

- 러시아 관광청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극동지역의 내국인 관광객은 2009년 143만 명에서 2014년 151만 명까지 소폭 증가

- 그러나 2012년 176만 명을 기록한 이후 2013년과 2014년에는 관광객 수가 연속으로 감소

○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극동지역의 주요 지역에 대한 내국인 관광객 유입 횟수는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확대되면서 내수관광경기 활성화

- 극동지역에서 유입인구가 가장 많은 캄차카주, 프리모르스키주, 하바롭스크주의 유입 관광 횟수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블라디보스톡이 위치한 프리모르스키주와 캄차카주가 큰 폭의 성장

〈 표 4 〉 극동 주요지역 유입 내국인 관광 횟수: 2014-2017년

(단위: 천 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캄차카주	54.2	166.0	183.5	199.8
프리모르스키주	1,739.3	2,035.0	2,500.0	2,681.8
하바롭스크주	477.5	500.1	505.0	516.5

* 주: 2017년은 예측치임.
* 자료: Travel in Russia, Euromonitor International, Sep. 2017.

- 캄차카주는 러시아 내에서도 쉽게 접근이 어려운 관광지이나 정부의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주요 지역

○ 극동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12년 APEC 정상회담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이후 프리모르스키 주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감소

- 2012년 약 248,700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기록한 이후 2013년 196,600명, 2014년은 181,500명으로 감소

〈 표 5 〉 극동지역 내 외국인 관광객 수: 2009-2014년

(단위: 천 명)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하공화국	4.2	4.9	4.0	5.7	3.6	5.1
캄차카주	5.7	8.0	4.2	3.9	4.5	4.9
프리모르스키주	91.2	96.9	143.3	166.2	118.3	98.1
하바롭스크주	14.5	15.7	15.8	13.8	15.3	16.4
아무르주	31.7	33.3	34.5	34.5	28.1	19.6
마가단주	1.3	1.5	2.1	2.1	2.3	1.7
사할린주	52.3	33.5	25.1	20.3	22.7	34.0
유대인자치구	1.9	1.7	2.1	1.7	1.1	1.4
추코트카 자치구	0.3	0.3	0.3	0.5	0.6	0.4
합계	203.2	196.0	231.4	248.7	196.6	181.5

* 자료: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ство по Туризму

- 다만, 러시아 관광청의 공식자료가 2014년까지만 공표되고 있어 최근의 지역별 추이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2 극동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 극동지역 관광산업 육성의 필요성

○ 관광산업은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의 일부분으로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전반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정책의 시현

- 러시아 극동지역은 넓은 영토에 비해 거주 인구가 적고 산재해 있어 집약적인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으며 자국의 서부 중심시장에 지리적으로 유리된 지역으로 종합적인 발전 필요

-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내에 다양한 경제 활력요인들을 개발하고 경제 활성화

○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개발가능성이 높은 극동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장기적인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 극동지역은 자연 및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관광잠재력이 풍부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개발이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국내외의 관광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

  * 반면 숙박시설 등의 관광자원 인프라가 부족하여 현재로서는 다양한 관광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단점

- 한·중·일 등의 동아시아 지역 관광수요를 흡수한다면 극동지역의 동아시아권 경제편입 등 러시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정책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 가능

□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 러시아 정부는 정부주도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극동지역에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 『2025년까지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으로 극동지역 전반에 대한 개발방향 제시

- 정부주도의 최상위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밝히고 있는 극동지역 관광산업의 방향은 ▲극동지역의 환경과 특색에 적합한 다양한 관광자원개발,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의 적극적인 협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극동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잠재적인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변국의 투자 등을 통해 단시일 내에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

○ 프리모르스키 지역은 주정부 차원의 하위 프로그램을 통해 2020년까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시행

- 『2013-2020년 프리모르스키 주 관광발전 국가프로그램(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НА 2013 - 2020 ГОДЫ)』을 통해 지역 내 관광산업 개발 방향 확정

- 구체적인 시행 내역으로는 ①관광·레크레이션 종합단지 조성, ②관광서비스의 질 개선, ③국내·외에 관광지로서의 프리모르스키 주 홍보강화, ④프리모르스키 주의 해외연계 활동 등이 포함

- 관광·레크레이션 종합단지 조성에는 주요 지역에 ▲문화, ▲생태, ▲휴양, ▲레크레이션 등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종합단지 구성 및 호텔 등의 숙박시설 확충이 포함

- 관광서비스의 질 개선에는 숙박시설 및 관광업 종사자들의 인적자원 역량강화, 관광산업에서의 안전성 확보 시스템 구축, 주요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 등이 포함

- 프리모르스키 주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강화를 위한 센터 설립, 대중매체를 활용한 관광자원 홍보 체계 마련 등 예정

- 프리모르스키 주의 해외연계 활동에는 프리모르스키 주 차원에서 해외파트너 및 투자자 초청행사 적극 개최, 주 정부자격으로 해외 박람회 등에 참여, 해외기관 및 사절단 방문 시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등의 방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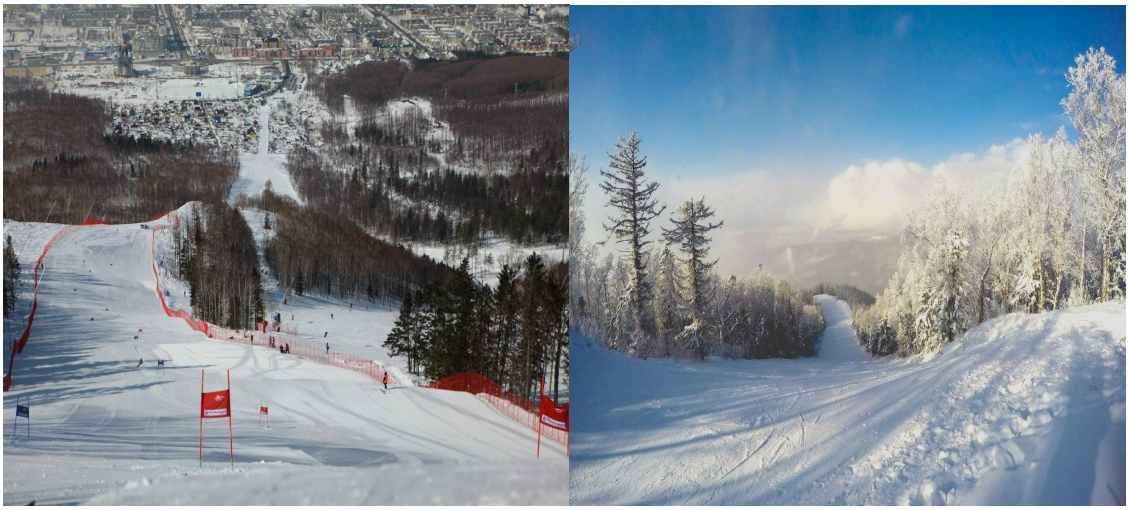
3 주요 관광자원과 한국의 협력방안

□ 사할린 『고르니 보즈두흐(Горный воздух)』스키 리조트

○ 고르니 보즈두흐는 사할린 지역에 위치한 스키 리조트로 러시아 정부가 2016년 3월에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극동지역 주요 관광지

- 고르니 보즈두흐는 1960년에 개장한 러시아 내 유서 깊은 스키 리조트로 극동지역의 인근 레저·휴양 관광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스키시설 중심의 복합 리조트 단지 추구

〈 그림 1 〉 스키 리조트 '고르니 보즈두흐' 전경



* 자료: '고르니 보즈두흐' 홈페이지

-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에서 관광지로서 고르니 보즈두흐의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2016년 3월 해당 지역을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투자확대 및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고

자 함.

* 선도개발구역 중에서 캄차카 지역과 함께 유일한 관광·레저 중심 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정 이전에도 사할린 주정부 차원의 중·장기 개발계획이 추진되었으며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

- 현재 주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에 따라 스키장 자체 시설확장, 부대시설 증설 및 관광인프라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 고르니 보즈두흐 리조트는 사할린이라는 섬 지역에 자리하고 있어 주변 자연환경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수요시장과 개발규모가 작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사할린 섬은 타지역에 비해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어 스키 리조트와 결합하여 휴양이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 가능

* 또한 리조트와 '유즈노 사할린스크(Yuzhno Sahakinsk)'市가 인접하고 있어 도심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난 점도 강점으로 작용

- 러시아 정부는 '고르니 보즈두흐'를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 및 정부차원의 지원을 지속하는 등 협력환경은 우호적

〈 표 6 〉 스키 리조트 '고르니 보즈두흐'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 연계된 자연환경의 우수성 도시와 인접하여 접근성 우수	리조트 규모가 작고 인프라개발이 더딤 내수 시장이 작음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동북아지역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내 수요 지속 상대적으로 지명도 낮아 성장 가능성 큼	동북아 스키리조트의 대형화 동계스포츠에 대한 해외 수요 감소 대규모 투자에 대한 사업 리스크 상존

* 자료: 박지원, “프로젝트 현실화를 위한 투자유치 가능성 분석: 고르니 보즈두흐 스키장 현대화,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 복합산업단지 개발,” 2014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Ⅱ-러시아 사할린주, p. 62.

- 다만, 대외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동북아 스키 리조트들이 대형화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소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은 약점
  * 리조트를 찾는 관광객이 주로 내국인이며 ‘유즈노 사할린스크’市의 인구가 약 60만 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同리조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관광객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

○ 기회요인으로는 동북아 지역의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현재 러시아 국내수요가 해외수요로 확장될 경우 성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임.

- 동북아 지역의 관광수요는 중국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어 고르니 보즈두흐에 대한 해외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존

- 고르니 보즈두흐를 찾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러시아인으로 아직 대외지명도가 낮아 해외관광객이 적은 것은 단점인 동시에 향후 대외수요를 확대시킬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

○ 경쟁구도가 되는 동북아 스키리조트들이 최근 대체로 내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다양화·대형화 하고 있다는 점은 고르니 보즈두흐에 있어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겨울스포츠 시설이 발달한 일본의 경우, 동계스포츠 인구의 감소로 인해 기존의 스키리조트들이 다양한 기능을 갖춘 휴양 시설로 복합화하고 있는 추세로 규모나 시설의 다양성의 경쟁력 측면에서 고르니 보즈두흐는 열세

- 러시아 정부 및 사할린 주 정부도 기본적인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국가의 경쟁리조트와 차별화 되는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프리모르스키 주『루스끼 섬(Русский остров)』개발계획

○ 루스끼 섬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동쪽 연안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관광지로 개발 가능한 잠재력이 풍부한 곳

- 루스끼 섬의 면적은 97.6㎢로서 제주도 면적의 약 1/20 정도에 불과하나 바다와 숲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블라디보스톡 도심과 가까워 개발여건이 양호
  * 루스끼 산 등 3개의 산이 있으며 해안을 따라 산책로 등이 조성

- 과거 러시아 극동함대의 군사기지로 활용되어왔으며 2012년 개최된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간에게 개방되어 왔음.

〈 그림 2 〉 루스끼 섬과 극동연방대학교 전경

* 자료: google map & crocusgroup.com

○ 연방정부는 루스끼 섬 개발을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극동관광 개발의 핵심지역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개발계획을 추진

- 러시아 정부는 APEC 정상회담 및 2015년부터 계속된 동방경제포럼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국제행사를 루스끼 섬에 위치한 '극동연방대학(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에서 개최하면서 지역 인지도 상승을 위한 노력지속

  * 극동연방대학교는 캠퍼스 내 정주인구가 약 10,000여명에 이르는 극동지역 최대의 대학교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성장 중

- 정부는 극동연방대학을 중심으로 루스끼 섬을 MICE 산업을 포함한 관광레저 산업과 첨단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추진

  * 러시아 정부는 루스키섬에 첨단과학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스콜코보 재단 (Skolkovo Foundation) 극동지사를 극동연방대학으로 옮겨서 과학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

- 적극적인 관광지로의 개발을 위해 정부는 루스끼 섬을 2010년 관광특구로 지정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며

2016년 기존의 관광특구 지정을 해지하고 선도개발구역(TOR)으로 지정하기위한 절차 지속

□ 캄차카 반도『(Камчат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 캄차카 반도는 러시아 극동 최동편에 위치한 지역으로 광활한 면적과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이 특징을 이루는 곳

- 반도의 전체 길이는 남북으로 약 1,250km에 달하며 전체 면적은 46만㎢에 이르는[1] 거대한 반도로 동·서로 각각 태평양 및 '오호츠크해(sea of Okhotsk)'와 면하고 있음.

- 캄차카 반도 전체 인구는 약 35만 명이며 그 중 18만 명이 주도인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Петропавловск Камчатский)에 거주

〈 그림 3 〉 캄차카 반도

* 자료: wikipedia mao & photo

1) 캄차카 주 홈페이지(https://kamgov.ru)

- 캄차카 반도의 남동쪽을 따라 화산지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현재 160개의 화산 중 29개는 활동 중인 화산으로 알려지고 있음.

○ 관광지로서 캄차카 반도의 가장 큰 장점은 사할린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이 우수하여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것

- 캄차카 반도는 여전히 화산활동이 활발하여 온천이 많아 휴양지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

- 러시아에서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가장 많은 곳으로 에코투어, 산악 트레킹, 스키, 카약 등의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가 가능한 지역

* 총 119개의 자연환경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6곳은 '캄차카 화산지역'의 명칭으로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 반면 캄차카 반도의 단점은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관광인프라가 현재까지 미약하다는 점임.

- 캄차카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도 동북단의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관광지로서의 접근성이 낮고 아직까지 해외인지도도 높지 않음.

- 관광지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지역으로 숙박시설이나 먹거리 등의 관광여건이 외국인 친화적으로 개발되지 않았음.

〈 표 7 〉 관광지로 캄차카 반도의 장단점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 활화산 등 독특한 관광자원 선도개발구역 지정 등 정부지원	러시아내 최동북단으로 접근성 낮음 숙박 등 관광인프라 미비 연계 관광자원 부족

○ 러시아 연방정부는 캄차카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관광산업육성, ▲항만개발의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선도개발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기대

- 주 정부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와 엘리조보 지역에 '파라툰카(Паратунка)', '젤레노브스키에 오제르키(Зеленовские озерки)' 등의 휴양센터를 조성하기로 결정

  *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연간 작물재배가 가능한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작물재배와 관광산업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추진

- 주 정부는 또한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항의 현대화를 통해 항만발전과 관광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으로 여객터미널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크루즈선이 취항할 수 있는 시설완비 계획

- 정부는 선도개발구역의 초기 단계에서는 약 3,000개, 완결 단계에서는 8,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한국의 협력지역 우선순위 설정

○ 한국은 극동지역 관광협력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배분과 협력전략을 수립하여야 함.

- 극동지역의 관광자원개발 협력에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력 대상에서 다양한 기준에 근거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함.

- 협력 우선순위 설정은 러시아 정부와 한국의 필요성 등의 기준에 의해 마련되어야 하며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단계적 협력 전략과 각각의 사업에 대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함.

ㅇ ① **러시아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 러시아 정부가 해당 지역을 얼마나 우선적인 개발순위에 두는지에 대한 판단필요

- 러시아 정부는 3개의 지역에 대해 대외적으로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우선적인 개발지역을 표면화하고 있지 않으나 루스끼 섬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이해할 수 있음.

- 루스끼 섬 개발은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프로젝트로서 정부는 루스끼 섬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로 지정한 바 있음.

- 루스끼 섬이 극동지역에서 갖는 상징성은 기존의 군사목적 시설로 활용되던 곳이 극동지역을 대표하는 교육·과학·관광 단지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으로 극동연방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역량이 집중

- 푸틴 대통령도 매년 극동연방대에서 개최되는 '동방경제포럼'에 직접 참석하여 극동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등 루스끼 섬이 갖는 중요성을 표명

- 반면 고르니 보즈두흐와 캄차카 반도 역시 러시아 정부가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지역이나 루스끼 섬에 비해 상대적인 우선순위에서 열세

- 한국정부와의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바탕으로 3개 지역개발을 위해 모두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한 사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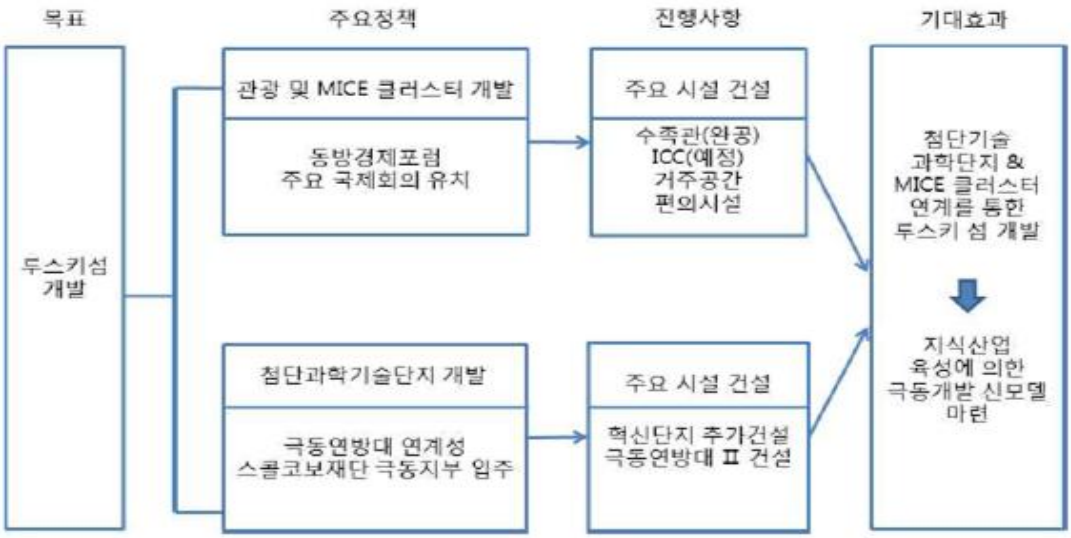
ㅇ ② **한국의 개발경험과 노하우**: 관광지로서의 지역개발 경험과 지역에 대한 협력 가능성 정도

- 한국은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 제주도의 MICE 산업육성 및 대내외 관광객 유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국내 스키리조트 개발 등에도 다수의 사업진행

- 루스끼 섬 개발은 초기부터 한국의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 경험을 참고로 하였으며 섬 개발의 지향점의 한 축도 '관광 및 MICE 클러스터 개발' 이라는 점에서 제주도와 유사

  * 러시아 정부가 루스끼 섬 개발과 관련하여 초기에 관심을 가졌던 모델로 싱가포르나 두바이 등도 있었으나 국가 전체의 개발모형이라는 점에서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제주도의 모델에 더 관심을 보임.

〈 그림 4 〉 루스끼 섬 개발정책과 기대효과



* 자료: 루스끼 섬 개발전략 및 투자유치방안, 201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러시아 연해주 정책보고서, p. 92.

- 고르니 보즈두흐에 적용될 수 있는 스키장 리조트 개발 사업의 경우, 한국 민간기업의 경험이 축적된 프로젝트라는 측면에서 협력가능성 상존

- 그러나 캄차카 반도 생태관광지 개발의 경우, 한국이 생태관광지를 지역단위의 대규모로 개발하고 발전시킨 경험이 미약
  * 더구나 캄차카의 생태관광은 화산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로 한국의 관광지 개발환경과는 괴리가 있음.

○ ③ **관광지로서의 발전가능성**: 3개 관광지의 향후 발전 및 확장 가능성

- 루스끼 섬 관광지개발은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공가능성이 높은데, 정부는 현재 극동대학교 내의 회의시설 이외에 별도의 국제회의용 시설 건설 추진 중

〈 그림 5 〉 루스끼 섬 개발구역 확대방안

* 자료: 루스끼 섬 개발전략 및 투자유치방안, 201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러시아 연해주 정책보고서, p. 107.

- 또한, 이미 개장한 아쿠아리움에 더해, 리조트 등의 휴양시설 건설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관광지로서 루스끼 섬의 기능은 다양해질 것이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경쟁력을 가질 것임.

- 고르니 보즈두흐는 스키장으로서의 규모가 작고 관광지로서의 확장성에 한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스키리조트와 비교할 때, 뚜렷한 강점을 부각시키기 어려움.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발전계획에 따르면 겨울철 스키장으로 뿐만 아니라, 계절에 관계없이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리조트 시설로의 개발 가능성이 낮음.

- 캄차카 반도는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관광시설 개발 등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성과가 미비하여 단기간 내에 획기적인 개발성과를 거두는 데 난항

□ 한국의 우선 협력지역과 전략

○ 극동지역의 3개 주요 관광지 중에서 한국은 앞선 기준에 의거하여 우선적인 협력지역과 협력방안을 모색

- 러시아 정부의 정책적 중요성, 한국의 개발경험과 노하우, 관광지로서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우선적인 협력 대상 지역은 루스끼 섬임.

- 루스끼 섬은 모든 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여건과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관광부문에 있어서 한국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곳
  * 세 가지 협력의 기준에서 루스끼 섬의 가치가 다른 곳에 비해 높은 평가

- 고르니 보즈두흐와 캄차카 반도는 각각 차별화된 협력전략을 전개하여 실용적인 협력성과를 얻어내야 함.

○ 루스끼 섬: 개발협력 적극 관여

- 프리모르스키 주는 극동지역에서 관광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루스끼 섬을 블라디보스톡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사업에 한국의 적극적인 관여 필요

-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계획상 1단계인 도로, 전력 건설 및 극동연방대학교와 아쿠아리움 설립 등이 완공된 상황으로 현재는 제 2단계인 국제회의시설과 주거시설 건립 단계

- 제 2단계 개발계획은 사실상 루스끼 섬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개발의 성격이 강하며 제 3단계 개발계획에서 정부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리조트, 관광레저단지 등의 복합시설조성을 계획

  * 제 2단계 개발계획은 루스끼 섬의 일부만을 개발하는 계획이나 제 3단계 계획은 완성된 2단계 계획을 기반으로 루스끼 섬을 대외경쟁력을 갖춘 MICE, 휴양,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

- 한국은 제주도 개발계획의 경험을 바탕으로 MICE 산업육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데, 제주도와 극동연방정부 차원의 협약 등을 기반으로 MICE 산업 협력 기반구축 필요

- 루스끼 섬의 리조트 개발에는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가능한데, 단순 리조트 시설 건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조트 운영에 관한 일정 기간의 사업권과 운영수익을 가져가는 방식 고려가능

  * 루스끼 섬의 리조트는 블라디보스톡 인근 50㎞ 외곽에 위치한 '티그르 드 크리스탈(Tigre de Crystal)카지노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너

지 효과창출가능

- 루스끼 섬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IT·BT 산업을 기반으로 한 메디컬 클러스터 개발이 논의되고 있어,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등과 연계하여 한국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영역

* 한국의 의료진과 연계한 의료관광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도 가능

〈 블라디보스톡 인근 복합 카지노 시설 건설 〉

○ 프리모르스키 주에서는 2022년 완공예정으로 카지노 복합단지를 건설 중으로 카지노를 중심으로 다양한 오락시설이 들어설 예정

- 가장 먼저 '티그르 드 크리스탈(Tigre de Crystal)' 카지노가 2015년 하반기에 개관하였고 이후 복합단지 내에 호텔, 워터파크, 회의장, 쇼핑몰 등이 입주할 계획

- 블라디보스톡에서 약 50㎞ 떨어진 우수리만 서북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극동지역의 다양한 투자유치 제도와 결합하여 극동지역을 국제적인 수준의 오락 및 휴양이 가능한 곳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여 조성

- 주정부가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혜택제공을 통해 세계적인 카지노 관련기업인 '멜코 그룹(Melco Group)'이 同단지에 투자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평가받고 있음.

- 극동지역에서 러시아 정부가 시행 중인, 자유항제도, 선도개발구역 등 다양한 외국인 투자자 유치제도와 연계하여 외국인들의 휴양과 오락이 가능한 곳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높은 곳

○ 고르니 보즈두흐: 스포츠·휴양·문화 연계 협력

- 고르니 보즈두흐는 스키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휴양시설이 중

심이 되는 관광지로 스키 시설과 관련한 설비확장은 향후 크게 확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고르니 보즈두흐의 스키시설 경쟁력이 동북아 국가들의 그것에 비해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워, 수요에 한계가 있어 단순한 시설확장을 통한 규모의 경쟁은 무의미

- 사할린 주 정부의 마케팅 전략도 단순히 스키리조트의 기능과 시설확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리조트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은 주요 협력방향으로 고르니 보즈두흐의 스키 및 휴양시설을 활용한 공동의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될 수 있음.

- 고르니 보즈두흐 휴양지가 위치하고 있는 '유즈노-사할린스크(Yuzno Sakhalinks)'市에는 한국의 항공사와 러시아의 '아브로라(Aurora)' 항공이 직항편을 운영하고 있고 비행거리가 짧아 장점으로 작용

- 또한 사할린은 과거 한인 강제징용의 역사적 흔적을 간직한 지역으로 현지의 문화·역사 유적과 연계한 협력 프로그램의 구성도 가능

- 결론적으로 고르니 보즈두흐에 대한 한국의 협력방안은 앞선 루스끼 섬의 프로젝트 수주 등의 협력방안과는 달리,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인적교류를 활발히 하는 방식의 협력이 주효

○ 캄차카 반도: 생태관광 협력

- 러시아 정부는 캄차카 반도의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가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다양한 관광 인프라에 투

자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음.

- 캄차카 반도가 러시아에서도 지나치게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외딴 지역일 뿐만 아니라, 화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이외에는 이렇다 할 개발가능성이 낮기 때문

- 한국으로서는 캄차카 반도에서의 관광자원개발에 대규모의 투자하기보다는 생태지역 관광인프라 개발 컨설팅을 중심으로 관광자원의 소프트웨어 개발협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전략

Ⅲ 임업·목재산업 협력방안

1 극동지역의 산업환경

□ 극동지역 임업환경

○ 극동지역은 러시아 연방 전체 산지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어 임업 자원이 풍부하며 관련 산업 발전 잠재력이 높음.

- 극동지역 9개 행정구역의 전체의 삼림면적은 약 4억 9,694만 ㎢에 달해 러시아 최대의 임업자원을 보유

〈 그림 6 〉 극동지역 행정구분과 임업자원

지역	사하공화국	하바롭스크주	프리모르스키주	마가단주
면적(㎢)	2억5,500만	7,370만	1,190만	4.470만

캄차카주	아무르주	추코트카 자치구	사할린주	유대인 자치구
4,420만	3,050만	2,770만	690만	210만

* 자료: 러시아 연방산림청 홈페이지(http://www.rosleshoz.gov.ru)

- 사하공화국의 삼림면적은 약 2억 5,500만㎢로 전체 극동지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하바롭스크, 마가단주, 캄차카주 등의 삼림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은 프리모르스키주, 사할린주나 유대인자치구 등의 삼림면적은 다른 극동지역에 비해 넓지 않음.

○ 극동지역의 지역별 목재생산량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생산지역은 하바롭스크주와 프리모르스키주에 집중

〈 표 8 〉 지역별 목재생산량

(단위: 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하공화국	672.2	668.4	536.2	635.9	574.5	432.4
캄차카주	-	-	3.8	2.8	2.8	13.3
프리모르스키주	1,543.5	1,545.3	1,358.0	1,285.9	1,407.9	1,650.9
하바롭스크주	4,050.6	4,304.0	3,577.7	2,663.2	2,765.8	2,428.1
아무르주	496.8	423.6	288.1	229.1	141.6	59.7
마가단주	-	-	-	-	-	-
사할린주	33.7	82.2	96.9	67.4	109.7	78.7
유대인자치구	n/a	n/a	n/a	n/a	n/a	n/a
추코트카 자치구	-	-	-	-	-	-

* 자료: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 사하공화국은 극동지역 내에서 가장 넓은 2억 5,500만㎢의 삼림지대를 갖고 있으나 생산되는 목재의 양은 2015년 기준 432,400㎥로 프리모르스키주나 하바롭스크주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하바롭스크주는 2010년 약 400만㎥에서 2015년 약 250만㎥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 극동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목재를 생산

- 프리모르스키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삼림자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재 생산량이 하바롭스크주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는 등 극동지역 내 주요 목재 생산지역
  * 반면, 마가단주와 추코트카 자치구는 작지 않은 삼림자원에도 불구하고 목재 생산이 없으며 캄차카주의 생산량도 매우 미미한 수준

2 극동지역에서 중국의 임업협력현황

□ 중국의 극동지역 임업협력 정책과 사례

○ 중국은 극동지역의 임업자원 협력에 정부차원의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조성사업을 활용하면서 국가 간 중요 협력산업의 하나로 인식

- 중국정부는 중앙정부차원의 『국가급 협력구』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성급 협력구』의 해외산업단지 조성에 극동지역을 포함

- 극동지역에 조성되는 중국의 산업단지에는 임업기업이 다수 포함되어있으며 同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임업협력

○ 중국의 극동지역 내 해외산업단지 추진사례로는 임업가공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수리스크 협력구'를 주요 사례로 들 수 있음.[2)]

- 우수리스크 협력구는 2006년 개최된 중·러 간 총리회담에서 중국정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협력이 시작된 산업단지로 양국 간 대표적인 협력사례

  * 우수리스크시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물류여건이 양호하고 중국과의 철도 연결이 용이한 지역

- 중국의 3개 기업인 '헤이룽장성 지신공업무역그룹', '저장성 캉나이그룹', '원저우시 화룬기업' 등이 공동설립한 '캉지국제투자유한공사'는 시행사로 산업단지 내의 인프라 개발과 운영관리를 담당

2) 하기 사례는 이현주, "중국의 해외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중국의 해외경제무역협력구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국토연 15-13, 2015, 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되었음.

〈 표 9 〉 우수리스크 협력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시행사	캉지국제투자유한공사	3개 기업 공동출자
건설사	캉지국제투자유한공사	
위치	프리모르스키주 우수리스크시	
부지면적	- 계획부지: 2.28㎢ - 계획건축면적: 1.63㎢	
투자규모	- 계획: 20억 위안 - 실제: 약 10억 위안	
주요 업종	신발, 의류, 가전, 목재	

- 우수리스크 협력구에는 목재산업과 신발류 등의 주요 중국기업이 진출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 중국의 목재기업은 러시아의 원목을 초벌로 가공한 뒤, 반제품을 저관세 또는 무관세로 중국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가공 단계를 거쳐 중국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제 3국으로 수출하는 구조

○ 중국의 극동지역에 대한 임업투자는 우수리스크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국의 임업산업에 대한 협력의지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우수리스크 이외에 유대인 자치구의 아무르 및 바슈코프 지역과 프리모르스키주 포크로프카 지역 등에도 중국 기업의 임업 진출 지속

- 극동지역에서의 중국 산업단지 구축을 통한 임업가공 비즈니스

모델은 러시아에서 저비용 임금을 활용한 제조업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음.

- 우수리스크 협력구는 세금혜택 등에 있어 극동지역의 선도경제구역이나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어 상기 지역에 제조업을 투자하는 기업은 우수리스크 지역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구축 가능

  * 거기에 더해 2014년 이후 루블화가 80%가량 평가절하 되어 극동지역에서의 제조업 생산시설구축이 산업에 따라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판단

3 한국과의 협력방안

□ 한국의 임산물 교역동향과 러시아

○ 한국의 임산물 수입은 주로 펄프류나 합판, 제재목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수입루트를 확보

- 한국의 연간 임산물 수입금액은 약 51억 6534만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73.9%인 38억 1864만 달러가 5대 수입품목에 집중

〈 표 10 〉 한국의 주요 수입 목재류: 2017년 누계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명	비중	금액	3대 주요 수입국
1	펄프류	26.7	1,378,236	칠레, 캐나다, 브라질
2	합판	15.1	777,598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3	제재목	13.7	709,254	칠레, 러시아, 중국
4	원목	11.3	586,155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5	칩	7.1	367,404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러시아
합계		73.9	3,818,647	

* 자료: 산림청 임산물 수출입통계

- 2017년 기준 수입품목 1위는 펄프류로 전체 목재류 수입비중에서 약 26.7%를 차지하였고 금액으로는 약 13억 7,823만 달러를 기록

  * 펄프류의 주요 수입국은 칠레(2억 62,75만 달러), 캐나다(2억 6,030만 달러), 브라질(2억 526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러시아는 9,282만 달러로 6위에 해당

- 주요 수입품목 2위는 합판으로 수입금액 7억 7,758만 달러에 전체 수입비중은 13.7%를 차지하였고, 3대 수입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이 차지

- 제재목 및 원목 수입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비중은 각각 13.7%, 11.3%를 차지

○ 러시아는 한국의 주요 입업 제품 수입국으로 수입금액 기준 전체 수입국가운데 9위에 해당

- 2017년 기준 러시아로부터의 임업제품 전체 수입금액은 2억 4,796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수입국 가운데 9번째로 수입금액이 높은 국가

  *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금액이 5억 6,679만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국(5억 3,808만 달러), 베트남(5억 832만 달러), 캐나다(4억 7,289만 달러), 미국(4억 5,043만 달러) 등으로 나타남.

-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수입품목 가운데 러시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제재목, 칩, 합판 및 단판 등인 것으로 조사

○ 한국은 임산물 수입이 수출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구조이나 일부 임산물은 수입 후 가공을 거쳐 해외로 수출하고 있음.

- 2017년 한국의 주요 수출품은 판지류로 전체 수출비중에서 51.6%를 차지하였으며 금액은 약 1억 달러를 상회

  * 판지류 수출의 대부분은 중국(5,182만 달러), 인도네시아(1,968만 달러), 베트남(1,480만 달러) 등 상위 3개국에 집중

- 제재목과 섬유판, 목재케이스 등도 주요 수출품이나 금액은 크지 않으며 주로 원목을 수입해 가공한 뒤 수출하는 형태

〈 표 11 〉 한국의 주요 수출 목재류: 2017년

(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명	비중	금액	3대 주요 수출국
1	판지류	51.6	108,154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2	제재목	10.5	22,068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3	섬유판	10.4	21,746	일본, 베트남, 중국
4	목재케이스	9.0	18,774	미국, 중국, 이탈리아
5	펄프류	6.6	13,892	중국, 베트남, 일본
합계		88.1	184,634	

* 자료: 산림청 임산물 수출입통계

- 주요 수출대상국에서 러시아는 제외되어 있으며 다만 건축목공 품목에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은 약 36만 달러를 기록하여 해당 품목 주요 수출국 3위에 해당

○ 한국은 2017년 약 2억 4,796만 달러의 임산물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으며 수입 품목은 다양하게 분포

- 러시아로부터의 수입 품목 중 제재목이 약 9,572만 달러, 3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펄프류도 37.4%로 높은 수입비중을 보임.

- 그 뒤를 이어 합판, 칩, 원목 등이 러시아로부터 수입 되었으나 그 비중은 제재목과 펄프류에 비해 낮은 수준

〈 표 12 〉 한국의 대 러시아 수입 목재류: 2017년

(단위:%, 천 달러)

품목명	금액	비중
제재목	95,723	38.6
펄프류	92,820	37.4
합판	35,606	14.4
칩	15,528	6.3
원목	4,504	1.8
기타	3,785	1.5
합계	247,967	100

* 자료: 산림청 임산물 수출입통계

□ 한·러 협력 유망분야: 목재펠릿

○ 목재펠릿[3]은 목질계 친환경 바이오 연료가운데 하나로 러시아의 임업자원을 활용한 목재펠릿 제조 생산시스템 구축과 활용은 양국 간 협력유망분야

- 목재펠릿은 다른 형태의 목질계 연료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고 연기와 타르의 발생이 적으며 운반이 편리한 장점이 두드러짐.
  * 반면, 목재칩의 경우 벌목재를 활용하는 경우 토사나 수분함량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상존

- 목재펠릿은 한국의 점증하는 국내수요와 러시아의 강점인 임업산

3) 목재펠릿은 목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조된 목재 잔재를 톱밥으로 파쇄하여 압축한 것. 화학적 결합물질의 첨가 없이 고압으로 압축되어 생산되며 크기는 4-10mm, 길이는 20-50mm 정도임. 제조공정은 톱밥화 및 건조 → 가열(200~300℃) 및 압축 → 냉각의 과정을 거침. 톱밥 6㎥로 약 1톤의 목재펠릿이 제조. 김충재, 김점수 “강원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화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2012, p. 15.

업의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주요 분야로 협력 유망

* 한국은 바이오연료의 일환으로 러시아로부터 주로 목재칩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금액이 2017년 기준으로 1,552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 한국의 목재펠릿 소비량은 2000년대 후반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내 소비의 상당량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실정

- 2009년 국내 생산량은 8,527톤, 수입량은 12,042톤에 불과하여 연간 국내 소비량이 20,569톤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연간 국내 생산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 국내 생산량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으나 2014년 90,462톤을 정점으로 2015년과 2016년 연속으로 감소추세로 2016년은 52,572톤에 그쳤음.

〈 표 13 〉 연도별 목재펠릿 생산 및 판매량

(단위: 톤)

연도별	계	국산(생산량)	수입산(공급량)
2009	20,569	8,527	12,042
2010	33,981	13,088	20,893
2011	64,013	34,335	29,678
2012	173,790	51,343	122,447
2013	550,271	65,603	484,668
2014	1,940,103	90,462	1,849,641
2015	1,552,821	82,137	1,470,684
2016	1,769,213	52,572	1,716,641

* 자료: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수입의 경우, 2009년 12,042톤에서 2010년 20,893톤으로 늘어났고 2014년 1,849,641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1,716,641톤으로 소량 감소한 상황이나 수입량이 국내생산량에 비해 월등히 많은 구조가 지속

  * 오히려 국내생산은 꾸준히 감소하여 2012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수입은 물량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감소하지 않고 있음.

○ 한국에서는 2010년대 이후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사업 육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면서 목재펠릿수요가 확대되는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장형성을 위해 노력해왔음.

- 우리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보급을 확산하려는 정책 마련

- 이에 따라, 정부는 환경·에너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과 MOU를 체결하여 건축물 신축, 증·개축시 목재펠릿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신도시 건설시 관공서·학교 등의 난방시스템 등 대규모 수요처를 개발[4)]

  * 일본의 북해도 다테市에서도 지역에서 생산된 펠릿을 사용하는 스토브를 시청에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수요를 정부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사례 다수

- 한국의 경우도 정부가 목재펠릿의 공공중심의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

- 목재펠릿 보일러의 보급현황을 보면 한국의 목재펠릿 수요는 대부분 주택용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2013년까지는 전국적으로 15,482대가, 이후 2014~2016년에는 대략 2,000대 내외로 보급되었음.

4) 목재산업진흥 종합계획(2012~2016), 산림청, 2011, p. 44.

〈 표 14 〉 한국의 연도별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현황

(단위: 대수)

구분	~ '13년까지	2014	2015	2016	합계
주택용	15,482	2,190	1,716	1,762	21,150
주민편의·사회복지	817	119	142	290	1,368
일반시설용	4	-	-	-	4
산업용	57	10	9	-	76
국가·공공기관용	96	1	-	-	97
지역단위 집중난방용	4	-	-	-	4
합계	16,460	2,320	1,867	2,052	22,699

* 자료: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반면, 주택용 이외의 수요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 아직까지 산업용이나 지역 난방용, 일반시설용 등의 용도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음.

□ 한·러 목재펠릿 협력을 위한 사업 환경

○ 목재펠릿을 기반으로 한 한·러 산업협력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원목 가공과 대외수출을 기본으로 함.

- 한국에는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하고 한국 내에서 판매하는 방식의 비즈니스 지속

- 러시아는 주요 목재펠릿 수출국중 하나이지만 대부분의 대형 목

재펠릿 생산기업이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극동지역의 사업자는 비교적 소규모 생산에 그치고 있는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팰릿수요 대응에 부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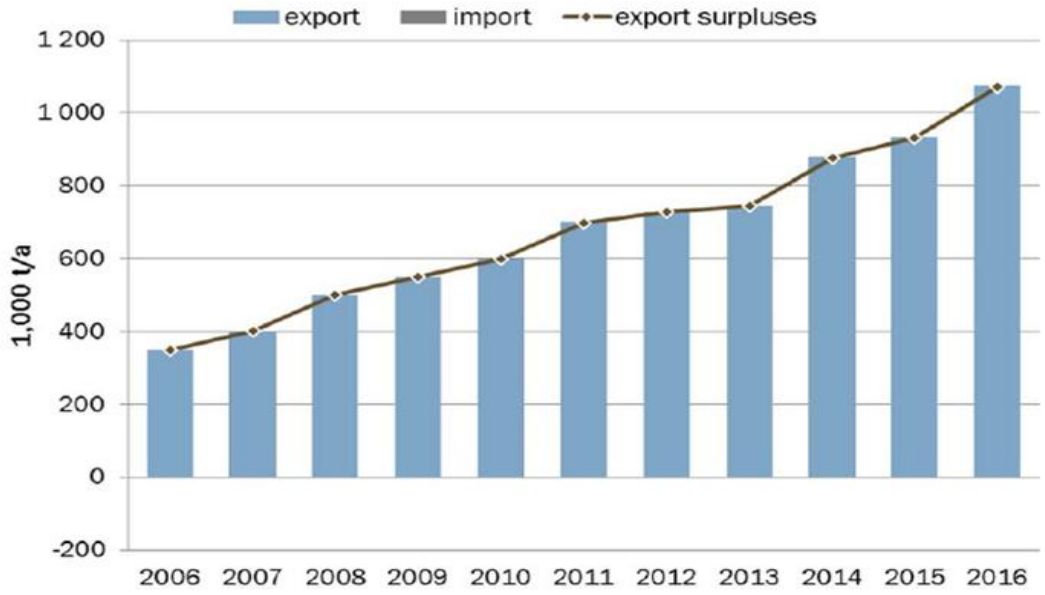
〈 표 15 〉 러시아 목재펠릿 수출 주요기업

기업명	지역	수출(톤/연)
JSC Vyborgkaya Cellulose	뻬쩨르부르그 지역(서부)	300,000
Arkaim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중부)	70,000
JSC Novoyeniseiskiy Wood-Chemical Complex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	50,000
Lesozavod 25	아르항겔스크 지역(북서부)	45,000
DOK Yenisei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	45,000
North West Holding	뻬쩨르부르그 지역	40,000
Swedwood Tikhvin LLC	뻬쩨르부르그 지역	35,000
Russian Wood Alliance Ltd	카렐리야 공화국(북서부)	30,000
OOO Setnovo	노브고로드 지역(서부)	20,000
OOO STOD	트베리 지역(서부)	20,000
Russian pallets	마리엘 공화국(서부)	20,000

* 자료: IEA Bioenergy, “Global Wood Pallet Industry and Trade Study 2017,” June, 2017, pp. 120-121.

- 〈표 15〉에서 보는 것처럼 러시아의 주요 목재펠릿 수출기업은 대부분 뻬쩨르부르그와 크라스노야르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중서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
  * 러시아는 목재펠릿의 내수수요가 미미하여 생산된 양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구조

〈 그림 7 〉 연간 러시아 목재펠릿 수출입 현황



* 자료: IEA Bioenergy, "Global Wood Pallet Industry and Trade Study 2017," June, 2017, p.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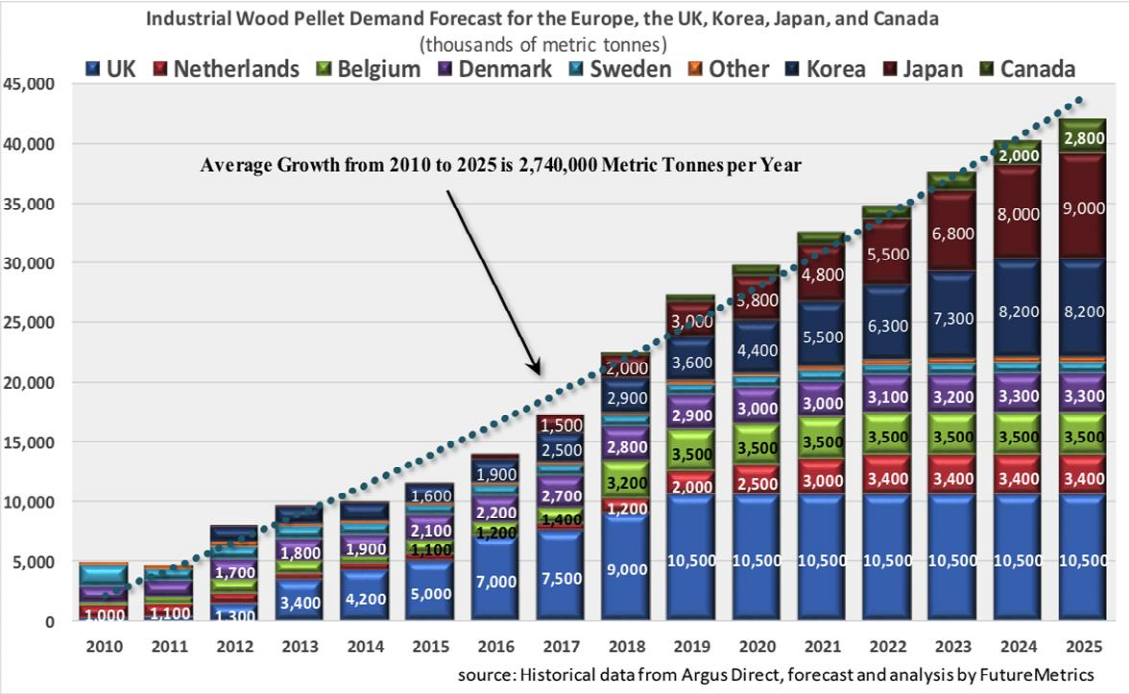
- 매년 목재펠릿의 수출량은 늘어나고 있으나 수입은 없는 대표적인 수출 중심국가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목재펠릿이 생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유럽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

* 유럽국가 중 러시아산 목재펠릿의 주요 수입국은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가 높은 덴마크,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등

○ 러시아산 목재펠릿협력을 위해서는 생산된 펠릿의 수요처가 확보되어야 하며 극동지역 기반의 생산과 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가능하여야 함.

- 전 세계적으로 목재펠릿의 수요는 친환경 연료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국 수요는 연평균 약 274만 톤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

〈 그림 8 〉 주요 목재펠릿 수요국의 연도별 수요변화: 2010-2025년



* 자료: Wood Pallet Association of Canada, "Global pallet market outlook in 2017," (https://www.pallet.org/wpac-news/global0pallet-market-outlook-in-2017)

- 현재 목재펠릿의 주요 수요처인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의 경우, 향후 2025년까지 여전히 글로벌 수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수요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반면,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목재펠릿 수요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의 경우 2018년 기준 약 290만 톤에서 2025년까지 820만 톤까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

- 일본의 경우도 2018년 총 수요는 약 200만 톤 수준에서 2025년에는 900만 톤으로 크게 늘어 영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될 것으

로 관측

* 태평양지역에서 캐나다의 수요도 한국과 일본의 규모는 아니지만 큰 폭으로 성장예상

- 일본은 목재펠릿에 대한 국내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자국 내의 생산은 미약하여 2016년에만 전년대비 수입량이 49% 늘어나는 등[5] 목재펠릿 국내수요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

〈 일본의 에너지 정책과 목재펠릿 수요 〉

○ 일본정부는 국내 에너지환경 수요를 감안, 지난 2012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바이오매스 시장에 우호적 환경 조성

-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전력생산에서 태양광이나 바이오매스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

* 국가의 에너지 생산에서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의 사용 경감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바이오매스 타운(biomass town)' 건설로 저변 확대추진

- 또한 화석연료사용의 지나친 대외의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국가차원에서의 에너지안보의식이 확대되면서 국가에너지 정책변환의 계기 마련

○ 목재펠릿 수요는 법 제정 이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2014년 이후 수입산 목재펠릿의 국내유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2015년에는 목재펠릿 수입이 전년대비 약 2배 이상 급증하며 수입산 비중이 국내생산을 넘어서게 되는 등 본격적으로 수입이 확대

- 2015년 기준, 주요 수입 국가는 캐나다(62,9%), 중국(24.9%), 베트남(11.8%) 등으로 대부분은 캐나다산 고급 목재펠릿을 수입

5) Louisa Blair, "Wood pallet market update," *Nordic Baltic Bioenergy Conference*, Helsinki, 30, March, 2017.

○ 극동지역의 한·러 합작 목재펠릿 가공공장설립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프로젝트로 판단할 수 있음.

- 첫째, 목재펠릿의 주원료인 목재 생산에 있어 러시아 극동지역은 프리모르스키주나 하바롭스크주를 중심으로 이미 다량의 목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목재펠릿으로 가공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음.

  * 극동지역의 다른 주와는 달리 두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로나 항만 등의 운송과 관련한 인프라 개발이 양호하여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기에 적합

- 둘째, 극동지역은 러시아 타 지역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여 펠릿 생산에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

- 셋째, 극동지역의 목재펠릿 생산시설은 향후 수요의 폭증이 예상되는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이라는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가능

- 넷째, 중국은 아직까지 목재펠릿 수요가 많지 않고 생산된 펠릿을 주로 수출하는 수출자의 입장이지만, 향후 국내 환경정책에 따라 바이오매스 수요가 급격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상존

- 다섯째, 현재 많은 러시아 목재펠릿 시설은 서구 수출을 목적으로 지역적으로 서부에 치우쳐 있고,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에 대한 제조업 유치 및 개발을 촉진하고 있어 극동지역에 대한 생산기지 구축은 정부차원의 협조와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극동지역 한·러 산업협력에 있어 상징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 중 하나

- 여섯째, 2014년 이후 계속된 유가하락과 경기불황으로 인해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하락한 상황으로 직접투자에 대한 부

담이 적어진 상황

* 2014년 초반까지 美달러당 35루블 정도였으나 2018년 1월 현재 56루블로 선으로 절하

○ 반면, 예상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는 수요, 공급 등의 측면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중국의 목재펠릿 시장은 자국 내 수요가 미약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동아시아 내 수요 확대 시, 중국 업체들의 시장진입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음.

  * 목재펠릿 제조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부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장 확대에 따른 중국기업의 저가제품 유입가능성 상존

- 둘째, 수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요가 예상과 달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낮음.

- 셋째, 현지투자와 관련 진행과정에서 절차상 원활하지 않은 과정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해외직접투자 유입의 경험이 적은 극동지방 정부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한·러 목재펠릿 협력 비즈니스 모델

○ 목재펠릿 협력을 위한 기본 구도는 한국의 자본 및 기술을 가진 기업과 러시아 기업과의 극동지역 내 합작 생산법인의 설립

- 한국 기업은 생산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며 러시아 기업은 현지에서의 생산부지 제공, 목재원료의 확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출시장 개척은 공동으로 추진

- 한국 기업의 극동지역 협력사업에서 목재펠릿 분야는 현지의 임업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의 극동지역 제조업 기반을 마련하는 『현지 자원 활용 협력형』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지자원 활용 협력형 한·러 경제협력 〉

○ 극동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가공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협력전략으로 러시아 정부의 필요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

- 극동지역의 풍부한 임업, 수산 자원 등이 주요 협력대상이 될 수 있음
  * 극동자원을 기반으로 현지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며 소비시장은 러시아 내 수용이 아닌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수요가 있는 제품 생산

- 현지에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위한 제반 인프라가 정비되어야하나, 현재로서는 인프라 개발이 미비하여 개발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염두에 두어야 함.

- 극동현지의 임업자원을 활용하여 목재펠릿으로 가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제조업의 중요 리스크 중 하나인 '원재료 수급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을 현저히 감소시켜 안정적인 제조업 생산기반 구축 가능
  * 다만, 원재료 수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파트너 기업과의 협의를 통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 목재펠릿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한·러 간 포괄적인 임업사업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 러시아는 임업자원이 풍부하여 목재나 부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이 가능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목재펠릿 이외의 기타 임업분야로 협업분야 확장 가능

- 극동지역에서 목재의 공급과 가공 및 운송이 적합한 지역을 중심

으로 목재가공, 팰릿생산 등을 포함한 임업가공 클러스터 조성 가능

〈 그림 9 〉 한·러 임업 협업체계

-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동일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게 되어, 상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러시아 정부도 클러스터화를 선호

  * 동일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상호기술개발, 인적교류, 자원활용 등의 측면에서 클러스터의 장점을 누릴 수 있음.

Ⅳ 결론 및 시사점

○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협력은 한국의 '9-브릿지(bridge)' 협력전략 제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

-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관심과 투자, 진출은 과거에도 지속되어왔으나 신정부의 '9-브릿지'전략은 한·러 관계에서 극동지역이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同전략에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중요한 분야들이 망라되어 있으나 관광·임업 산업은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다변화시키고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 가능

- 루스끼 섬 개발협력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한국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될 것이며 목재펠릿 중심의 가공 산업은 임업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 최근 극동지역에는 여러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점차 다양한 분야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KT는 극동투자수출청과 공동으로 모바일 의료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인구가 산재해있는 극동지역의 취약한 의료여건을 활용한 적절한 사업으로 평가

- 그 밖에도 많은 기업들이 농업,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의 대기업 위주에서 소기업 중심으로 다변화

○ 극동지역에서 한·러 양국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산업부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력할 필요

- 관광, 임업 분야 이외에도 양국은 극동지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꾸준히 발굴해야 함.

- 극동지역은 인구가 적고 분포가 산재해 있어 단순히 소비시장으로만 접근할 경우, 대외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산업과 방안이 제한되어 있음.

- 따라서, 러시아에서 제조업은 어렵다는 편견을 갖기보다는 극동지역의 자원을 활용·가공하여 타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 상존

  * 극동지역에서 중국이 산업단지의 형태를 활용하여 제조업 협력을 이어가는 것처럼 한국기업 전용공단이나 유사산업의 클러스터 추진 가능

- 러시아 정부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자유항, 선도개발구역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참고 문헌 >

- 문헌 자료 -

김충재, 김점수 (2012) “강원도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화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루스끼 섬 개발전략 및 투자유치방안. (201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러시아 연해주 정책보고서.

박지원. (2014) “프로젝트 현실화를 위한 투자유치 가능성 분석: 고르니 보즈두흐 스키장 현대화,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지역 복합산업단지 개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II-러시아 사할린주.

이현주 (2015) “중국의 해외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중국의 해외경제무역협력구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국토연 15-13

Blair, L. (2017) “Wood pallet market update.” Nordic Baltic Bioenergy Conference, Helsinki.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7) “Travel in Russia.”

IEA Bioenergy. (2017) “Global Wood Pallet Industry and Trade Study 2017.”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НА 2013 - 2020 ГОДЫ

Стратегия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 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на Период до 2025 года

- 인터넷 자료 -

러시아 연방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청 임산물 수출입통계

산림청 홈페이지

Crocus group 홈페이지

Горный воздух 홈페이지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홈페이지

Федеральное Агенство по Туризму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Wood Pallet Association of Canada, “Global pallet market outlook in 2017,” (https://www.pallet.org/wpac-news/global0pallet-market-outlook-in-2017)

2018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유럽 의료기기 시장동향 및 진출전략	2018.1
18-002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동향과 우리기업 진출전략	2018.1
18-003	유럽 소비재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18.1
18-004	한눈에 보는 수출유망국 (의료기기 ③편)	2018.1
18-005	2017년 하반기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2018.1
18-007	글로벌 로봇산업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2018.2
18-008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해외경쟁력 설문조사 분석	2018.3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동남아 대양주 프랜차이즈 시장동향	2018.1
18-002	한눈에 보는 해외 25개국 취업정보	2018.1
18-003	월드챔프 성공사례집: 2017년 코트라 월드챔프사업 참가기업의 수출 성공스토리	2018.2
18-004	2018-2019 해외전시회 한국관 디렉토리	2018.3
18-005	2017 KOTRA 글로벌 공헌사업 종합보고서	2018.3
18-006	해외에서 더 가까이 FTA 활용을 도와주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	2018.3
18-007	2017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8.3
18-008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7	2018.3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2018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8.1
18-002	2018 방산·보안기업 지원 사업설명회	2018.2
18-003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연계 멕시코 KSP 에너지·바이오·IT 진출전략세미나	2018.2
18-004	바다로! 대륙으로! 시장을 넓혀라!, 아세안·인도·유라시아 진출 설명회	2018.2

18-005	KOTRA 해외수주협의회 제 31차 수요포럼: 해외 체류시 재난 및 안전 대응 방안	2018.3
18-006	2018 UN 공공조달 플라자 (UN Procurement Plaza 2018)	2018.3
18-007	홍콩의 금융-무역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2018.3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2017년 대중수출 성과와 2018년 전망	2018.1

□ GIP (Global Issue Paper)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이란 핵합의 현황 점검과 우리기업 대응방안	2018.1

□ GTR (Global Trade Report)

번 호	제 목	번호부여일
18-001	2017년 12월(연간) 수출 동향	2018.1
18-002	2018년 1월 수출 동향	2018.2
18-003	2018년 2월 수출 동향	2018.3

작 성 자

▪ 글로벌전략지원단 박지원

Global Strategy Report 18-001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산업 협력방안

발 행 인 ❙ 이태식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8년 3월 30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글로벌전략지원단 (02-3460-7726)
I S B N ❙ 979-11-6097-652-6 (95320)

KOTRA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Global Strategy Report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